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자녀교육태도 비교연구: 교차거주자의 ‘자문화’와 ‘타문화’ 평가*

손승영**

초 록

한국과 일본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자녀교육을 위한 모성을 중시한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하지만 오늘날 한일 양국은 가족의 구성이나 가족관계에 있어서 많은 유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가족이데올로기의 유포, 부계혈통주의의 유지, 자녀에 대한 가족의 기대, 어머니의 역할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교차거주를 경험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가족주의와 모성이 자녀교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주목적이다. 조사대상자로는 최소한 1년 이상 외국인 일본이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유치원 이상 연령층 자녀들이 있는 어머니들로 국한해서 이 어머니들이 ‘자문화’와 ‘타문화’를 어떻게 평가하며 비교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심층면접결과, 첫째, 조사에 참여한 한일 어머니들은 모두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교육경쟁이 치열하며 대학입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한국에서는 대학입시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므로 결과로서의 공부성적이 중요한 반면, 일본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한국과 일본에서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인식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였으나, 한국 엄마들은 ‘교육매니저’로서의 정보수집과 자녀의 학습적 측면을 강조하고 일본 엄마들은 자녀가 행복하게 자라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성교육과 생활교육에도 치중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주제어: 한일 비교, 자문화, 타문화, 자녀교육태도, 교육열, 도구적 모성, 지원적 모성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2년간 받아 연구가 진행되었다(KRF-2007-327-H00041).

** 동덕여자대학교 교양학부 및 대학원 여성학과 교수 (sysohn@dongduk.ac.kr)

I. 서론

한국사회는 ‘학벌사회’로 불릴 정도로 학력이 중요하게 인정되어 왔으며(김상봉, 2004), 대학입시를 둘러싼 경쟁적인 교육열은 가정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정차원에서는 아동기부터 충당해야 하는 양육비와 사교육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며, 중상층 이상의 가족은 영어유치원 교육과 조기유학 등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경쟁적인 교육열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 조성, 공교육의 위상 실추, 부의 세습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다(김창호, 1997; 김홍주 외, 1999). 이에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과도한 사교육비가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에 치중해서 이 문제를 주로 다루다보니 자녀교육의 주체인 가족과 부모 역할을 중심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문화적 맥락에서 연구하는 데는 소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함과 동시에 가족 가치관이 교육열의 확산과 유지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족중심적인 가치관이 교육열을 높이는 ‘일반화된 신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해서 부모 중에서도 실질적인 자녀교육 담당자인 어머니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아울러 자녀사회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일 비교연구를 통해 학벌사회의 징후가 가족의 기대와 연계되어서 자녀 사회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문화적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자 한다.

일본은 삼·사십년 전만 해도 한국과 유사하게 교육열이 높은 나라였으나, 오늘날은 상당히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일본과의 비교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 특히 ‘일본에서 자란 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 어머니들’과 함께 ‘한국에서 자란 후 현재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어머니들’을 심층면접 대상으로 선정해서, 양국에서의 교차거주 경험을 통해 어머니들 스스로가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자국민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일상에서의

문화적 특수성을 타인의 눈으로 새롭게 밝혀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론부분에서는 한일 양국 어머니들의 면접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교육열과 어머니의 자녀교육태도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한국의 가족에서 모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1. 가족주의 전통의 한일 비교

오늘날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 가족형태로부터 급속히 변화해서 핵가족이 주류이지만, 서구사회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가족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위주의 가족가치관을 인정하는 서구사회(Steinhoff, 1994)와 비교할 때 한국과 일본은 가문, 가풍, 집안의 명예 등 가족위주 가치관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손승영, 1997). 동양사회에서는 개인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가족 위주의 총체적이고 집합적인 가치관을 중시함으로써, 가족주의 전통이 강조되어 왔고 가족은 개인의 이익을 초월해서 사회조직의 근간이 되어왔다(니스벳, 2004).

하지만 한일 양국 가족의 성격이나 기능은 다소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한국 가족이 혈연중심적 특징을 강하게 띠다면, 일본 가족은 ‘이에³⁾(家)’ 중심으로 공동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가족의 범주에 포함되는 등 한일 양국은 가족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나 개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혈연자만이 가족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일본에서는 혈연 계승의 원리를 넘어 가족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도제와 같은 비혈연자도 가족성원으로 포함시키는 등 가계 계승에 역점을 두는 직계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권용혁, 2004). 일본의 ‘이에’는 비친족원을 포함한 거주자들의 생활공동체를 뜻하므로 한국과 달리 개인의 혈통 계승보다는 집단의 영속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이에는 “혈연집단은 아니지만 혈연과 같은 것으로 포섭된 자의 집단 또는 계약에 의한 친족관계”로 정의된다(문옥표, 1994:16).

한국에서는 부계혈통주의에 기초를 두고 혈통중심적이고 ‘집안중심적 가족주의’의 특징을 유지해왔다면, 가업의 계승과 경제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컸던 일본가족에서는 충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차집단에 대한 헌신과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가족이라는 좁은 단위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한다(나카네 지에, 1994). 이와 같이 현대 일본에서의 가족주의 개념과 ‘가족적 가부장제 질서’는 개별 가족을 넘어서 정치, 기업, 기타 조직의 통치구조와 조직원리 설명에 유용한 개념이다(이진원, 2004: 475). 한국의 ‘집안중심적 가족주의’와 달리 일본에서는 넓은 범주의 조직원리가 강조되어서 유사가족적 관계가 중시되는 ‘집단가족주의’ 또는 ‘국가가족주의’로 칭해지기도 하였다(문준호, 1988).

한국에서는 유교의 영향이 커서 족보라는 가계도를 중심으로 부계혈통주의를 유지하는 경향성과 남성우월주의 사상이 두드러진 사회로 지적되고 있다(스즈키 고지 외, 2009: 144-146). 한국에서는 가족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는 유교에 기반한 전통적 규범이 기층문화로 계승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고도 경제성장 이후 ‘이에’가 붕괴하면서 가족형태의 핵가족화와 더불어 조상제사가 가계 중심에서 쌍계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스즈키 고지 외, 2009: 153). 특히 일본에서는 패전 후 전통적 가족제도가 약화되었고 부계혈연 중심성이 한국보다 약해서 부부나 개인의 가치 및 취향에 입각한 선택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다. 1994년에 부부별성제를 도입해서 자녀의 성을 출생시에 부부가 협의하여 아버지나 어머니 중 어느 한쪽의 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양현아, 1998)이나 시댁의 권위가 한국에 비해 덜 강조되는 점 등이 차이점이다(문소정, 2002).

이외에도 일본의 가족의식이 한국에 비해 더 유연한 형태로 작동되고 있음이 국제비교조사 결과 제시되고 있다. 일본의 국립여성교육회관이 0-12세 자녀를 가진 부모를 조사대상으로 2005년에 실시한 가정교육 관련 6개국(한국, 일본, 태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 비교조사에서 “장래 자녀에게 바라지 않는 가족상”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가족가치관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으며, 일본에 비해 정상가족이데올로기 규범을 강하게 수용하고 있었다. 한국 응답자의

90% 이상이 장래 자녀에게 바라지 않는 가족상이 ‘동성애커플’, ‘미혼으로서 자녀 가짐’, ‘유자녀 이혼’, ‘혼인신고 없이 동거’, ‘일생 독신으로 살기’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었다. 물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도가 스웨덴에 비해 일본에서 훨씬 낮게 나타났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괄목할만한 차이가 발견되었다(국립여성교육회관, 2006: 121; 와타나베 히데끼, 2008: 243에서 재인용).

〈표 1〉 장래 자녀에게 바라지 않는 가족상 (% , 복수응답)

국가	동성애 커플	미혼으로 자녀가짐	유자녀 이혼	혼인신고 없이동거	일생 독신	자녀갖지 않음	자녀데리고 재혼
한국	96.5	93.5	92.9	91.8	90.5	87.1	79.1
일본	76.0	62.3	69.0	45.9	69.9	60.5	33.1
스웨덴	32.3	17.6	51.1	7.0	86.1	67.3	15.3

• 자료: 와타나베 히데끼, 243쪽에서 재인용.

• 원자료: 국립여성교육회관, 2006, 헤이세이 16년도 · 17년도 가정교육에 관한 국제비교 조사보고서, 121쪽.

또한 동아시아 3국의 가족의식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권위주의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비교적 평등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한다. 사적 자율성 관련 질문에서 자신의 의견이 집안 어른의 의견과 대립될 경우 자신의 의견을 고수한다는 데 대해 일본 응답자의 29%와 한국 응답자의 18%가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일본에서는 10.8%이고 한국은 54%로 커다란 격차를 보였다(권용혁, 2004). 즉,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집안 어른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수직적 관계에 동의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무려 5배나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설문결과는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가족주의 의식이 강하며 개인주의가 훨씬 약하다는 홉스테드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홉스테드, 1996).

2. 모성과 여성정체성의 한일 비교

한국과 일본이 가족주의 전통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여성들에게 전통적인 성역할과 가사노동의 책임을 기대하는 가부장적 가족으로서의 면모에 있어서는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한일 양국에서는 현모양처로서의 전통적인 어머니 이미지가 지속되어왔으며(Smith, 1983), 오늘날까지도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과 모성이 미화되고 있다(손승영, 2000). 정형화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남성이 가장 이데올로기와 모성신화에 대한 믿음이 지속되고 있으며(이영자, 1999), 노동 강도가 높은 ‘회사인간사회(오사와 마리, 1995)’에서 남성이 가장 이데올로기가 정당화됨과 동시에 가족유지 및 지위 재생산을 위해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강요되어오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898년 민법의 친족 및 상속편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의 강화와 함께 가사와 육아를 여성의 일로 고정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예를 중심으로 가장인 호주가 전체 가족원에 대해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가부장적 가족관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이노우에키요시, 2004: 299; 종합여성사연구회, 2006: 199-200). 일본에서 여성의 교육은 메이지 후기에나 시작되었는데, 여성을 ‘양처현모(良妻賢母)’로 만드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이노우에키요시, 2004: 303). 근대적 의미의 ‘양처현모’ 정체성은 내셔널리즘이 고양되는 과정에서 확립되었으며,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은 국가적 관점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여성을 직접 통제하는 기제로서 양처현모 개념을 활용하였다(문소정, 2002: 313).” 이때의 양처현모 정체성은 에도시대에 여성의 순종만을 강요하던 가치관과는 다르며 남존여비가 아닌 남녀동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의 근대적 국가가 형성 된 후 자녀교육의 담당은 어머니의 책임이 되었으며,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남성은 회사인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췄고 여성은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 및 교육을 맡았다(츠위화, 2008: 333). 이러한 전통적 여성관에 대해 일본 여성들은 1960년대에는 묵묵히 받아들였으나 70년대는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리다가 80년대는 “모성애는 이제 그만”이라고 외칠 정도로 반대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고 한다(우에무라 구니코, 2005: 31-38). 전후 고도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핵가족화와 부부가족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여성들이 전통적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였다는 주장도 있다(주창렬, 2004: 514).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직도 ‘남성-생계부양자/여성-가정주부’라는 전통적 패턴이 뚜렷하며, 새로운 성별분업이 강조되는 현대에도 ‘남성은 일’, ‘여성은 가사와 일’로 구분됨으로써 여전히 가사는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다(문소정, 1999).

한국의 ‘현모양처’ 개념은 일본의 ‘양처현모’에서 유래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아내보다 어머니 역할이 전통적으로 중시된 결과, 순서를 바꿔서 현모양처로 사용해왔다(조혜정, 1988: 100). 전통적으로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많은 것을 희생하는 어머니상이 주를 이루었고 최근에 와서는 정보에 능통하고 유능해서 가족 구성원에게 다방면으로 도움이 되는 어머니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가정주부의 주된 역할로 친족의 일이나 생계유지가 중시되었던 과거와 달리, 가정주부의 역할이 자녀 교육, 가사노동, 친지와의 관계 유지, 재산증식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서 폭넓게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Moon, 1990).

한국과 일본에서 현모양처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유사성을 보이는 반면, 젠더 역할과 관련된 여성의 정체성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한국에서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모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여성의 존재가 공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국가 발전을 위한다고 표방된 모성은 공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사적인 가족 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여겨져 여성 동원을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모성개념의 유포에 국가가 개입하였다(정진성, 1999: 262). 일본에서 모성은 여성의 가족 내 어머니 역할을 강조하는 보수적 함의를 내포하면서도 여성을 가족과 사회 및 국가로 연결시키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이다. 메이지 후기에 가정이라는 말로 새로운 가족이 상징되었으나, 혈통으로 가(家)를 중시함으로써 국가를 경시해서는 안 되는 점을 일본에서는 강조하였다(한국여성연구원, 2002: 131). 뿐만 아니라 국가는 여성들이 가정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관해 여성의 역할을 세세하게 명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의 양처현모 정체성은

공적 영역인 국가나 사회와 여성의 연계에 바탕을 두고 있음과 동시에 국가 발전의 기초로서의 가족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현모양처 역할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로 사회와 분리되어서 강조된 가족 중심성에 기반을 두고 있고 개별 가족의 유지·계승 및 재생산에 초점을 맞추어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한일 가족에서 여성의 역할은 중요하며 양국 여성들 모두 가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한국 여성에 비해 일본 여성들은 주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일본 여성들은 임노동을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자신의 가정과 가족에서의 역할을 집 바깥일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Iwao, 1993). 2000년도에 실시된 부산과 후쿠오카 지역 여성의 의식조사 결과, 대학 재학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 중 한국여성은 자녀출산과 관계없이 계속 활동하겠다고 45.8%였으나, 고학력 일본 여성은 단지 8.8%에 그쳤다. 대신, ‘자녀를 키운 후에 복귀하겠다’는 응답이 84.2%로 거의 대다수였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단지 25.0%에 그쳤다(부산대 사회조사연구소, 2000; 문소정, 2002에서 재인용). 일본 여성들은 ‘프로페셔널 주부(professional housewife)⁴⁾’의 개념이 강해서 고학력 여성들조차도 가사의 중요성을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1991년에 실시한 가사노동 관련 의식조사에서 가사노동을 남편과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기혼여성이 63%에 달했다(야마다 마사히로, 2010: 168). 덧붙이 여성들의 경우도 비슷해서 “가사노동은 가족성원 중에서 담당해야 한다”거나 “가사노동이 없다면 가족의 결함이 희박해진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가사노동은 아내의 애정표현이므로 애정이 없어 보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들이어서 ‘애처 도시락’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도시락을 직접 싸주지 않는 아내는 애정이 결여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될 정도이다. 이에 가사노동으로 애정을 표현해야 하는 암묵적 강제성이 작동하면서 일본여성들은 필요이상의 가사

4) 일본여성의 프로페셔널 주부의식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장기간 살아온 경험을 애기한 책 『일본여자를 말한다』에서 한국여성과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저자는 한국여성이 외도를 하게 되면 가사를 팽개칠 것이 쉽게 예상되지만 일본여성들은 외도를 하더라도 가정에서의 책임과 주부역할에 대해서는 하나도 흐뜨리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다(유재순, 1998).

노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야마다 마사히로, 2010: 170). 또한 일본 여성들이 아이를 갖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로서 성장 기회를 갖기 위해,’ ‘가족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를 이어갈 새로운 세대를 형성하기 위해’를 내세울 정도로 아이와의 연계 자체를 강조하고 자녀양육을 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Iwao, 1993: 132). 한국여성들은 자신의 일을 위해 자녀 양육을 친척에게 맡기기도 하고 가사도우미를 활용해서 집안일을 줄이기도 하지만, 일본 여성들은 자신의 주부 역할을 당연시하고 성실히 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때로는 일본의 국가정책이 모성이나 주부의 역할 미화에 활용되기도 하는데, 어머니가 직접 도시락을 싸줌으로써 자녀와 어머니의 유대를 강화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정책적으로 실천에 옮긴 예를 들 수 있다(Alison, 1991). 최근 일본에서는 남성의 육아참여와 기업 노동관행의 변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으나, 이는 여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을 뿐 젠더관계의 변화를 꾀하는 정책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마정희 · 이재경, 2007).

3. 자녀교육태도의 한일 비교

최근의 한국가족은 지연, 혈연, 학연과 연계해서 자기 가족의 사적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특성을 보이는 가족이기주의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최재석, 1994). 한국의 강한 가족이기주의는 부모의 높은 교육열로 이어져, 자녀의 일류대학 입학과 사회적 성공에 대한 기대수준이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현철 외, 2007). 1970년대 OECD 교육조사단이 일본의 교육 실태와 내용을 조사했을 때만 해도 일본에서의 입시경쟁은 치열했으나(OECD, 1971), 21세기 일본에서는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었고 대학진학 결정에 있어서도 학생 스스로의 선택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와타나베 히데키 외, 2006).

일본에서는 1980년대에는 높은 소비성을 바탕으로 하는 ‘신인류’ 개념이 젊은이를 묘사하는 용어로 등장했고, 그 이후에는 관심 분야에만 광적으로 몰입하는 ‘오타구’ 개념이 등장할 정도로 일반 젊은이들의 생활상

변화가 크다(타케우치, 1995; 마츠다, 2006: 71에서 재인용). 또한 교육정책도 달라져서 1977년에 이루어진 학습지도요령의 4차 개정에서 “여유(ゆとり)와 충실”이란 용어가 도입된 이후 표준 수업시수와 교육내용이 감소된 대신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의욕이 중요시되고 있다(김보림, 2007). 1996년 7월 문부성 발표에 따라 ‘여유 교육’ 중심의 현행 학습지도요령이 고시되면서 지식 편향된 교육으로부터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는 힘을 배양하는 인간중심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학자에 따라서는 젊은 부모들의 교육열 저하와 청소년의 ‘학력저하 현상’이 발생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中村, 2000). 또한 일본의 입시경쟁이 일류대학이나 일류고등학교 응시생 등 특정 계층에 국한되어 나타나므로 계층격차가 커진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나카무라 타카야수, 2005).

2005년도에 일본의 국립여성교육센터에서 실시한 아동과 가족생활조사에 따르면,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부모가 바라는 자녀의 희망교육연한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 부모는 45%가 자녀의 대학진학을 원하고 2.1%가 대학원까지 희망함으로써 대학이상의 학력을 바라는 응답자는 절반 이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학까지’ 56.2%와 ‘대학원까지’ 27.3%를 합치면 대학 이상 희망자의 비율은 83.5%로 일본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있어서 아들과 딸에 차등을 두고 있었으나 한국의 부모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들이 많은 교육을 받기를 원했다⁵⁾(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 2007). 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가정에서의 학습시간을 조사한 2002년도 조사에서도 한국이 190분, 일본이 74분으로 한국 고등학생들의 가정 학습시간이 일본 학생들에 비해 2배 이상 길게 나타났다(후지타 · 와타나베, 2002; 이종각, 2005: 414에서 재인용).

부모의 자녀성공에 대한 기대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부모가 나의 사회적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고 응답한 한국고등학생이 92.8%로 높은 반면,

5) 일본 부모들은 아들이 4년제 대학을 진학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66%이었으나 딸은 단지 38%에 그쳤다. 반면 딸이 2년제 단기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20%였으나, 아들의 경우는 0%였다. 한국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서 대학까지의 경우 딸은 56.0%, 아들은 56.4%로 거의 비슷했다. 대학원 진학의 희망도 딸은 27.9%, 아들은 26.7%로 딸이 오히려 약간 높게 나타났다(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 2007).

일본 학생들은 50.7%에 불과했다. 또한 학력에 따라 장래인생이 정해진다는 ‘학력 결정론’에 대해서도 한국 학생들은 63.0%가 동의한 반면, 일본 학생들은 41.0%에 그쳤다. 이 외에도 한국 학생들은 ‘학력이 높으면 좋은 결혼상대를 만날 수 있다’거나 ‘사회에서 도움이 될 친구를 사귄다’고 믿고 있는 한편, 일본 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거나 ‘교양이 풍부해진다’는 응답이 많아서 고학력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또한 한국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나카무라 타카야수, 2005). 또한 일본 고등학생의 직업 목표는 상당히 다양한 방향으로 표출되어서 학업성적이 희망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았고 일본고등학생의 직업성취 경쟁이 한국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학업성적이 희망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아리타 신, 2005). 이와 같은 조사결과들은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 열기가 ‘졸업장 열병(diploma disease)’이라고 불릴 정도로(Dore, 1992), 일본보다 교육열이 높은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경험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열이 높은 한중일 3개국 비교조사에서도 한국의 교육열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승완, 2004: 170). 가족주의 전통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자녀교육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으며, 한국 어머니의 일상생활은 자녀의 교육 시간표에 맞춰 구조화되고 있으며(심영희, 1996), 때로는 자녀 교육을 위해 부부관계나 친족관계의 희생은 물론, 아내로서의 역할마저 희생하도록 요구되기도 한다(윤택림, 1996). 하지만 이와 같이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위해 어머니의 끊임없는 실천이 요구되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희생은 미화되거나 은폐되고 있다(조형, 1994).

최근 한일 양국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맞벌이가 늘어나고 있으나(이정규 · 최순자, 2007), 취업 여성도 자녀교육 중심의 모성 이데올로기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은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즉,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자녀 교육 문제의 핵심에는 가족 집단의 지위 재생산 욕구를 지향하는 ‘어머니 역할의 역사적 변화(Thurer, 1994)’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어머니의 자녀 양육 및 교육태도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와 내용을 지니고 있다(東洋, 2004;

Pomerleau, Malcuit, and Sabatier, 1991). 한국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일본 어머니에 비해 자율적, 애정적, 거부적 양육태도는 낮았으나, 통제적 양육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이정규·최순자, 2007). 일본에서는 정직, 질서, 규칙이 중요시 되지만, 한국에서는 학력중심주의가 우선적인 것이다. 또한 일본 어머니들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즉각 수용하기 보다는 많이 기다리는 법을 배우도록 시도하고 있으며, 부모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부모는 환경을 갖춰주고 그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고르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부모들은 부모가 나서서 자녀가 해야 할 일을 미리 결정하는 편이었다(최순자, 2007: 124-125). 이와 같이 한국 어머니들의 교육 기대가 높고 자녀에 대한 통제적 양육태도가 일본 어머니에 비해 확연히 높지만, 주관적 평가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서 통제보다는 자율과 애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점은 특기할만하다(이정규·김현철, 2005).

이상 가족주의 전통, 모성과 주부역할의 성격, 자녀양육과 교육태도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한국과 일본이 가깝고도 먼 나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일 양국은 유교적 전통이나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어머니 역할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유사점과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의식은 한국사회에서 더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가사역할에 대한 여성 역할의 인식은 일본에서 더욱 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가족과 여성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한일 교육열 차이나 자녀교육방식 차이에 부분적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가족의 특성과 어머니 역할과 연계해서 교육열의 한일 비교연구를 진행한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교육을 둘러싼 부모-자녀 관계나 자녀교육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모성의 특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와 부분적으로는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으면서도 차별화되는 일본 어머니들의 교육열과 자녀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사회화 과정, 목표, 부모-자녀관계 등에 대해 한일 문화를 비교함으로써 양국 어머니들의 모성의 특징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자녀 사회화 과정, 자녀에 대한 기대, 어머니 역할 등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를 보다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일 양국의 문화를 모두 접한 교차거주 경험자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소한 1년 이상 외국인 일본이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유치원 이상 연령층 자녀들이 있는 어머니들로 국한해서, 동경이나 근교에 거주하는 한국인 어머니 10명과 서울이나 근교에 거주하는 일본인 어머니 10명을 각각 선정한 다음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⁶⁾. 면접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자녀의 학년급별 분포와 부모의 계층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학년급별로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를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포함시키고자 하였고 부모의 계층에 따라 사립학교 재학생과 공립학교 재학생이 나뉘므로 이들을 모두 면접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면접은 주로 면접참여자의 집이나 회사근처를 방문해서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씩이었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와 이메일로 보충하는 방식을 추가로 활용하였다. 심층면접시에 한일 공통으로 사용했던 질문은 본인의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교육에 투여한 시간과 내용, 어머니들과의 정보공유 방식, 경쟁수용 정도, 어머니들의 교육열, 자녀양육방식과 가정교육방식,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개입 정도, 정서적·물질적·가사노동 측면에서의 부모-자녀관계, 자녀의 집안에서의 역할, 바람직한 어머니상,

6) 일본 거주 한국인 어머니들의 심층면접 참여자 선정 작업은 게이오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에게 1차 명단 작성을 부탁한 다음,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자녀의 학년급별 분포, 사립학교 재학, 거주 지역들을 감안해서 가장 적절한 면접 대상자들을 확정하였다. 일본거주 한국인 어머니 조사는 2008년 겨울과 2009년 여름에 두 차례 동경과 주변지역을 방문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한국 거주 일본인 어머니들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2009년 봄부터 가을까지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한국거주 일본인 어머니들은 1차적으로는 한국거주 일본인교수들을 통해 추천을 받았고 그 어머니들이 다시 추천해주는 식으로 해서 면접대상자를 선정해나갔으며, 2차적으로는 일본인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동부 이촌동의 글로벌센터를 방문해서 만나게 된 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여성의 임노동에 대한 평가, 남편의 기여도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이상의 모든 주제에 대해 다른 한국 엄마들과 일본 엄마들은 어떤 방식으로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함으로써 비교분석의 내용으로 삼았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사*례	연령	직업	남편 국적	남편 직업	자녀수	자녀 연령	자녀 학교	거주** 기간	특기 사항
K1	32세	주부	한국	회사원	딸2	3세 5세	공립보육 원	7년	
K2	32세	주부	한국	금융업	딸2	3세 5세	사립 유치원	1년	홍콩지사에서 일하다 동경으로 옮
K3	32세	회사원	재일 교포	회사원	아들2	4세 초등 1	공립 초등	8년	호주유학 중 교포 3세 만나 결혼
K4	37세	여행사	한국	여행사 경영 대학	딸1	초등 1	한국 초등학교	10년	부부가 함께 여행사를 경영함
K5	35세	주부	한국	조수	아들1	초등 4	공립 초등	5년	사립 중에 보낼 계획
K6	39세	디자이너	한국	공장 운영 개인	딸1 아들1	6세 초등 3	한국 초등학교	16년	딸은 사립유치원
K7	42세	주부	한국	사업	아들1	6세 중 2	사립 중학교	9년	
K8	37세	번역일	한국	회사원	딸2	초등 2 중 1	한국 초등학교	15년	유학생끼리 만나 결혼 후 일본거주
K9	40세	주부	한국	사업	아들2	초등 2 초등 4	한국 초등학교	2년	
K10	50세	강사	한국	사업	딸2	고 3 대학생	공립 고등학교	29년	재일교포 2세. 한·일 오가면서 지냄
J1	38세	주부	한국	회사원	아들2	5세 7세	한국 유치원	9년	
J2	36세	주부	일본	회사원	딸1 아들1	5세 7세	한국 유치원	2년	
J3	34세	주부	일본	회사원	딸1	6세	한국 유치원	2년	
J4	36세	주부	일본	사업	아들1 딸1	초등 1 초등 3	일본인 학교	1년	
J5	38세	주부	일본	회사원	딸2	초등 1 초등 3	일본인 학교	2년	
J6	44세	강사	한국	사업	아들2	초등 5 중 1	한국 일반학교	15년	큰애는 일본공립에 2년 다녔음
J7	43세	번역일	일본	회사원	아들2	중 1 중 3	일본인 학교	2년	
J8	52세	선교사	한국	목사	아들3	중1 고1 고3	한국학교	24년	남편: 농아인 교회 목사
J9	49세	주부	한국	회사원	아들1 딸1	중3 고1	한국학교	22년	일본에서 대학졸업후 영국에서 공부
J10	49세	교수	한국	교수	딸2	고 3 대학생	한국 외고	24년	큰애는 일본에서 대학 다님

* K는 한국인 어머니이며, J는 일본인 어머니를 칭함.

** 한국인 어머니는 일본에서의 거주기간을 의미하며, 일본인 어머니는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을 의미함.

IV. 심층면접 결과⁷⁾

1. 한국과 일본의 학교 교육과 교육열 차이

1) 교육열과 학교 운영방식의 차이

일본 거주 한국인 어머니들이나 한국 거주 일본인 어머니들 다수가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교육 경쟁이 더 치열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한국에서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열심히 공부시켜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에서 교육열이 높은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는 약 20~30% 정도에 해당된다(K10). 일본의 상류층은 교육열이 한국에서처럼 치열해서 게이오처럼 유치원에 입학하면 동일 재단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보장되는 ‘에스컬레이터식 학교’에 자녀를 보내기도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에스컬레이트식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게이오나 와세다와 같은 유명 사립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엘리트 코스가 열려있다. 사립중학교에는 초등학교 한반 학생 30명 중 경제적 여유가 있는 5~6명 정도가 진학하며, 대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입시학원에 보내고 자녀가 과외를 받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이 별도의 자가용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자녀들을 학원에 데려다줄 수 있어야 한다(K7).

“일본에서는 상위 20%가 치열하게 공부를 시키죠. 한국보다 오히려 더 치열해서 동경대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과외 시키고. 동경대는 부잣집 아이들이 주로 가기 때문에 교육비가 많이 들고 사립 중, 고등학교 나와야 하고 입시도 치열하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가운데가 없어졌어요. 2류대나 3류대 가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보니 70% 정도는 공부를 안 하는 셈이고요. 밑에 남동생이

7) 심층면접 참여자들이 한 얘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경우 ‘어머니’라고 표기한 반면, 면접 참여자들이 불특정 다수를 지칭한 경우에는 ‘엄마’라고 표기해서 구분하였다. 또한 사례 표기 시 K는 ‘일본 거주 한국인 어머니’를 뜻하며, J는 ‘한국 거주 일본인 어머니’를 칭한다.

일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한다고 불평을 해요(K10, 고등 및 대학 자녀).”

일본에서는 좋은 중학교에 가면 자연스럽게 좋은 대학까지 무난히 진학하고 ‘부서활동(부가쓰)’을 많이 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K8). 사립학교에서는 공부를 많이 시켜서 대학입시에 이점이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규율이 엄격하기도 하다. “공립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보니 아주 잘 못해도 아이들을 퇴학시키지도 못하고 터치를 하지 않다보니 문제가 있지만 사립은 규율이 엄격해서 아이들이 나쁜 물이 들지 않도록 지도하고 좋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7).” 또한 일본에서 공립 중학교는 대부분 남녀공학이지만, 좋은 사립 중학교는 남자학교와 여자학교 분리해서 운영하므로 이성교제로 인해 공부에 소홀해질 여지가 줄어든다(J3).

한일 양국 어머니들의 공부에 대한 태도차이는 유아교육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보육원은 국공립으로 동네 주택가 부근에 있어서 일하는 어머니를 잘 돕고 생활적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상담해주며,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예능교육을 시키는 정도이다. 유치원은 사립으로 보육원에 비해 비싸서 계속해서 사립학교에 진학할 아이들만 유치원에 보낸다(K4). 하지만 사립유치원에서도 놀이 중심으로 운영을 할 뿐 한국에 서처럼 글씨를 가르치는 등 조기교육 형태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사립유치원은 지하철 옆에 있어서 출퇴근하는 부모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되어있어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히라가나를 안 가르치는 경향이어서 사립 유치원에서도 읽고 쓰기를 안 가르치다보니 아이들을 아주 편하게 지내도록 놔두는 편이고요. 유치원에서도 애들이 흠장난이나 밀가루 장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유치원이 좋은 점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대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기는 점이에요. 선생님이 개인면담도 아주 정성스럽게 해요. 아이가 다니는 사립 유치원의 경우 처음에는 아침 8시에 가서 11시에 집에 왔고, 이제는 도시락을 싸가서 1시 10분에 오는 짧은 일정이에요. 연장보육을

하면 시간당 300엔을 내야하고 시간은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또 부모가 직접 가서 픽업해야 되고요(K2, 유치원 자녀).”

“한국에서는 2세 때에 한글 동화책 읽는 것을 가르치는데,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되어서야 히라가나를 가르치는 정도지요. 또 한국에서는 친구 애들을 보면 초등학생들도 밤 12시까지 과외를 하던데, 여기서는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지만 시누 애들을 보면 초등학생 내내 아주 잘 놀고 건강하게 그리고 잘 먹는 것이 주된 관심이에요. 여름 내내 학교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놀아서 얼굴이 시꺼멓게 타지요.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비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적어요(K3, 유치원 자녀).”

일본거주 한국 어머니의 경험과 달리, 한국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일본인 어머니들은 한국 유치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점에 대해 놀라왔다고 했다. 한국 유치원의 일본인 클래스에서는 일본인 담임선생님이 히라가나를 가르치고 미국인 원어민 교사가 매일 영어를 가르친다. 일본의 사립 유치원에서는 영어 노래정도 가르치지만 한국에서는 알파벳을 외고 쓰게 하고 간단한 문장을 만드는 수준이어서 일본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내용을 한국에서는 유치원에서 배운다(J3). 이와 같이 공부 수준은 높은 반면, 현재 아이가 다니는 한국 유치원에는 유치원부지 안에 놀이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야외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은 점을 일본인 어머니들은 아쉬워했다(J2).

또한 한국에서는 중학생이 되면 공부 학원에 다니고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지만, 일본에서는 공부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가는 학생들은 학구적이고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 ‘소위 공부가 적성에 맞는 아이들’이다(K2). 한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도 학습평가에 치중하므로 한 아이의 여러 가지 능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은 적은데다 시험을 많이 보고 있다. 선행학습에 치중하는 사교육 제도가 만연해 있고 돈이 없으면 공부도 못할 정도로 차등이 있으며, 강남에는 좋은 학원이

밀집해 있어서 집값이 비싼 점 등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다(J9).

“처음에는 한국학원에서 영재교육을 위해 테스트하는 것을 보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영재교육이라는 것이 선행학습이고 고3 교육까지 미리미리 다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 안에 코스가 있고 과외도 따로 받아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한국교육이 안 좋으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것 같네요. 미국에서는 과목도 자신이 골라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선행학습이라는 게 돈 있는 아이들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일찍 배운 애들은 학교서 줄고(J9, 고등자녀).”

하지만 일본에서는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소수이며, 사립학교조차도 한국처럼 경쟁적이지는 않다. 또한 한국의 여유 있는 계층에서 유형인 조기유학을 일본사람들은 생각하기조차 힘들고 조기유학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J8).

2) 지식전수의 장(場)으로서의 한국학교와 포괄적 교육서비스를 중시하는 일본학교

일본 거주 한국인 어머니들은 일본 학교의 좋은 점으로 특별 활동을 많이 시킨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일본에서는 학교별로 특색이 뚜렷해서 테니스, 유도, 야구 등 운동부, 합창부, 밴드부, 연극부 중심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정평이 나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일류고등학교도 6시면 하교하는데, 4시부터 6시까지는 특별활동을 실시한다. 일본 엄마들은 자녀의 능력이나 관심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므로, 자녀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상관없이 성적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는 한국 엄마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야구를 예로 들면, 일본학교는 고교야구도 매우 층이 두텁고 아마추어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교에서도 프로야구만 가능하므로 아마추어리즘이 없고 운동선수를 선택하면

야구에만 매달려야 하므로 층이 얇을 수밖에 없다(K10).

“주위 예술학교에서는 음악을 중시하는 데, 이는 동네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어요. 음악을 중시하는 초등학교는 3학년 때부터 진짜 열심히 시키고 악기 하나씩 하게하고. 마을 축제 때 참가하니 아이들이 좋아해요. 보통 등교가 8시인데 발표회 때는 7시에 등교해서 연습하고 학교 끝나고 또 연습을 하죠. 방학 때도 발표회 준비하느라 열심히 연습하는데, 아이들이 살 빠질 정도로 (K8, 초등자녀).”

일본 학교에서는 한국 학교에 비해 공부 스트레스가 적고 중·고등학교에서 특별활동으로 스포츠를 많이 하다 보니 운동을 잘 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 인기가 좋다(J3). 한국에서는 중·고등학생이 되면 특별활동을 잘 안하는데, 일본에서는 고학년에게도 특별활동 시간이 보장되므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스포츠만 잘 해도 다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로부터 충분히 인정을 받기 때문에, 공부를 가장 중요한 잣대로 평가하는 한국과는 다르다(K5). 일본에서는 공부를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프로만 키우므로 축구를 하고 싶은 아이들이 팀 훈련이나 연습에 적극 참여하지 못해서, 많은 아이들이 일찌감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J8).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굳이 대학진학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다른 길들이 열려 있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나 골프 등에 소질이 있으면 전문학교만 나와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많다(K1).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공부나 운동 등 취미활동을 전반적으로 골고루 할 줄 아는 평균적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공부나 특기 하나를 집중적으로 잘 할 줄 아는 사람을 육성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는 문화적 차이점이 있다.

“일본 엄마들은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아이를 존중하고 자긍심을 느끼게 만들어요.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기본 전제가 통하고 있어요. 한국 엄마는 공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원하는 피아노나 예능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일본 엄마들은 달라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기대를 하고 또 아이를 키워나가는 편이에요. 아이들을 억지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목표를 갖게 한 다음, 아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피아노 연주회가 있다면 아이 스스로 아주 열심히 연습해요. 어릴 때부터 자신이 목표로 한 것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지요(K6, 초등자녀).”

또한 일본 거주 한국인 어머니들은 일본 학교에서의 체계적 교육서비스 제공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행사가 눈앞에 닥쳐야 안내문을 보내주는 한국 유치원이나 학교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일본인 어머니(J2)의 불평과는 달리, 일본학교에서는 학년 초에 모든 스케줄이 나와서 1년간의 행사 일정과 교육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개별 행사에 대해서도 상세한 알림장을 미리 보내주기 때문에 부모의 궁금한 점을 상당 부분 해소해준다(K8). 일본학교에서는 정해진 규칙들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규칙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점도 한국 학교와는 다른 점이라고 한다. 스승의 날에도 자그마한 개인적인 선물조차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이나 사례가 없어서 좋으며(K7), 단체 활동의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정해진 규칙을 분명하게 지키도록 명시하고 있다(J6).

“일본 학교는 규칙이 까다롭다. 아이 유치원 때 연극공연을 갔는데, 극장이 신주쿠에 있어서 집에서 가는 게 학교에 들렀다 가는 것보다 시간이 절약이 되어서 직접 극장으로 애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반드시 학교에서 집합해서 가야하고 집에서 바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단체 활동을 중시하는 경향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유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규칙을 지키는 이유는 실수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원칙대로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해도 학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K8,

초등자녀).”

일본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서비스가 좋은 점이 한국인 어머니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겨울에는 학생들이 추울까봐 담임이 제일 먼저 와서 난로를 피우기도 하고, 교장선생님이 아침마다 등교시간에 아이들 이름을 모두 기억해서 반길 정도로 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데 놀랐다고 한다(K5).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섬세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자세한 주의 사항을 자주 전하는 편인데, 수영을 하는 날에는 아이들이 체온이 몇도 이상 오르면 학교에 미리 연락해서 수영을 빼게끔 통신문을 보내주고 조치를 취하는 등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한다(K9). 아이가 방과 후 교실에서 놀기 위해서는 미리 부모가 도장 찍어서 보내야 받아주며, 귀가 시에는 오후 4시 전에는 집에 혼자 보내지만, 오후 4시가 넘어서는 보호자가 와서 데리고 가도록 되어있다(K5). 또한 한국에서 공부하던 큰 애가 중3때 일본에 있는 학교로 전학 간 경험이 있는 교포 어머니는 전 과목의 선생님들이 그 다음 해에 있는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자기 아이 한 명을 위해 개인지도 식으로 시간표를 짜고 배려를 해주어서 놀라왔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K10).

일본 학교에서는 부모의 참여를 중시해서 보호자 회의나 수업 참관 등을 자주 진행하는데, 보호자 회의에서는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지 설명하고 지역 활동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K5). 일본에서는 학부모회가 어머니 단독이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 활동을 하는 ‘PTA(Parents and Teachers’ Association)’로 구성되고, 보육원에서는 어머니들이 학교 가꾸기나 아이들 돌봐주기 등 역할을 주로 하며 졸업식 준비나 사은회 등의 특별행사를 공동으로 준비한다(K8).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PTA 어머니들은 운동회 사진 찍고, 광고 내고, 바자회를 해서 학교를 위한 수익금 모으고, 농구공 등 학교에 필요한 비품을 사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K7). 행사 후에 갖는 회식의 자리에서는 한국 같으면 “잘 끝나서 후련해하면서 한잔 마시는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차이라고 했다(K8).

한 서울거주 일본인 어머니는 “일본에서는 학부모가 선생님을 만나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생님의 교육이념은 어떤지 알고 싶어서 학교에 갔더니, 한국인 담임선생님은 아이의 성적표부터 먼저 꺼내놓고 얘기를 진행하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한다(J8). 한국에서는 엄마가 학교에 찾아가면 아이가 문제가 있거나, 선생님께 잘 보일 목적으로 오해받지만 일본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가정방문 제도가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살필 수 있다(J9). 게다가 한국에서는 해마다 담임선생님이 바뀌니까 아이들과 정들면 헤어져서 적응이 안 되지만, 일본 학교에서는 같은 담임선생님과 몇 년씩 함께 지내서 지속성이 있다(J5). 반면 한국 학교에서는 어머니회 소속 학부모가 아니면 자녀 상담을 위해 학교방문을 자주 하지 않는 편이어서, 부모가 선생님으로부터 서비스를 잘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일본 학교에서는 부모가 도와주더라도 학교 앞 교통정리 정도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엄마가 학교에 가서 돕는 식이어서 학급 청소나 급식 당번도 어머니의 역할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다(J9).

한국 학교에서는 교사의 서비스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점이 일본인 어머니들의 불만으로 부각된 반면, 교육의 양이 많고 지식전달 체계가 잘 갖춰진 점은 한국 학교의 장점이라고 한일 양국 어머니들은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영어를 조금씩 배우지만, 한국에서는 영어문법, 영어회화 등으로 나뉘어서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또한 피아노나 다른 악기도 일본에서는 주1회 정도 배우지만, 한국에서는 매일 집중적으로 가르치니 아이들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J4). 한국에서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 사교육을 가장 비슷하게 적용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동경 신주쿠에 있는 한국학교와 그 주변의 학원들이다. 신주쿠 한국학교에서는 일본학교들과는 달리 교과에 치중하며 ‘미국인 원어민 선생님들로 구성된 이머전 수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받은 영어로 하며, 나머지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수업을 한다. 한국에서 단기 계획으로 일본에 온 주재원 가족이나 조기유학 목적으로 오게 된 한국인 어머니들은 아이들 공부에 적극적이어서 신주쿠 한국학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 1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해온 한국인 어머니들은 한국학교가 너무 교과에 치중하는 방식 때문에

고민을 했으나 아이에게 한국어와 역사를 배우게 할 목적으로(K8)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줄 목적으로 신주쿠 한국학교를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K6).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 비해 한국 어머니들의 교육열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학교에서의 교육방식 또한 지식전수와 학생들의 학력 증진에 최대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의 운영방식도 어머니들의 높은 교육열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어서 한국 학교는 효율적인 지식전수에 몰두하고 있으나, 일본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체계적인 서비스와 학생 보살핌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공부나 운동이나 무엇이더라도 한 가지를 특출하게 잘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스페셜리스트(specialist)’가 중요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거나 공부를 시키는 반면, 일본에서는 공부와 함께 다른 특별활동을 골고루 잘하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가 더 인정받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자녀 키우는 방식의 차이

1) 목적지향적인 한국 어머니와 과정을 중시하는 일본 어머니

일본인 어머니들이 보기에, 한국에서는 엄마들이 모여서 아이가 중학생 쯤 되면 성적을 언급하는 일이 많고 심지어 초등학생조차 공부를 잘하는지 비교하고 상대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시험치고 나면 한국 엄마들은 자녀에게 몇 개 틀렸느냐고 물어보는데, 자신은 아이에게 항상 몇 개 맞았느냐고 물어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J6). 일본학교에서는 중학생들도 절대 평가를 실시하고 상대평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한국학교에서는 상대평가로 등급을 매기고 한국 엄마들은 심지어 자녀들로서도 비교해서 “형이 동생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는 식으로 줄 세우기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점은 일본에서와는 큰 차이라고 했다(J10). 한국 부모들은 아이의 성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보다는 남의 아이를 칭찬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집 아이들에 대해서도 한국 어른들은 “공부를

잘 한다” “예쁘다” “잘 생겼다” “날씬하다” 등의 칭찬을 하곤 하는 데, 일본에서는 아이가 말을 알아들을 정도이면 절대로 상대 평가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일본인 어머니는 한국에서는 육아의 목표가 획일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일본에서는 칭찬이나 평가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초등학생에게는 인사 잘 하네”와 같은 식으로 그때그때 행동에 따라 뭘 잘했다고 칭찬하는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고 한다(J6). 이에 대해 일본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한국인 어머니가 느끼는 점은 일본 부모들이 성공이나 대박을 쫓기보다는 아이들이 소박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점이 한국과는 큰 차이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자녀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강해서 강박관념이 작용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공부를 시키는데 일본에서는 자녀가 무엇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일본 엄마들은 아이가 교우관계가 좋고 친구 잘 사귀고 사고 안치고 무난하게 생활하고 학교에 즐겁게 다니고 공부도 어느 정도 따라가기만 하면 좋다는 생각을 주로 하고 있다(K7).”

자녀가 학령 전 연령층이거나 초등학생인 경우 일본 거주 한국인 어머니들은 일본의 여유 있는 교육 방식에 대해 매우 찬성하며 일본식 교육방식을 따르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에서는 엄마들이 모이면 옆집 애들과 견주면서 자기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시킬 계획을 짜지만, 일본 엄마들은 모여서 아이들의 성장환경에 신경 쓰고 아이들 놀게 할 계획을 주로 짜는 등” 정보교환의 내용이 다르다(K5). 일본 엄마들은 아이들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더라도 그 주된 내용은 “아이에게 뭘 시키면 좋은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아이가 힘들지 않은지 배려 섞인 내용을 주고받는 것으로 아이들에 대해 표 나게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K4).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도 일본 엄마들은 다른 엄마들을 쫓아서 학원 보내는 식은 아니고 비용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규모 있게 투자를 하는 편이다. 아이의 성적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본인의 철학으로 내세우는 일본인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시험지나 점수를 체크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이가 일반적인 상식만 갖고 있다면 시험 성적은 좋지 않더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아이를

믿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실천한다.”고 얘기했다(J7).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입시전쟁을 치른다고 여겨질 정도로 한국 부모라면 누구나 다 자식에게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아이가 공부하기 싫을 때에는 더 이상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지만, 한국에서는 교육을 통해야만 출세를 하거나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K7).

“한국에 한번 나가면 정신이 없어요. 친구들 얘기가 만 2세에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등 정말 너무들 일찍부터 법석을 떠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는 유치원 때는 공부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일본에서 7년을 살다보니 혹시 남편이 한국에 돌아가게 될까봐 걱정이 많아요. 한국에 가서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아이를 공부시키고 과외 시키고 학원 보내면서 아이나 나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아이도 힘들 것 같고요(K1, 유치원 자녀).”

한국에서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듯이, 친환경적인 놀이공간을 중시하고 하던 일본 거주 한국인 어머니들도 자녀가 고학년이 되면 자녀에게 공부에 전념하게끔 만드는 분위기로 바뀐다.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에 대해 일본에 오래 산 한국인 어머니는 과거 일본도 한국과 유사했다고 한다. 자신의 시어머니 얘기에 “일본도 한 30년 전에는 사교육 열풍이 강해서 시어머니가 남편을 키울 때 과외를 열심히 시키는 풍토였다”면서 한국도 조만간 일본처럼 바뀌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K3). 일본 엄마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다양해서 교육열이 높은 사람은 아이를 과외 시켜서 좋은 사립학교에 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K1), 대부분은 공부 때문에 자녀를 다투지는 않는 편이고 아이가 꼭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J2). 그러나 일본의 유도리 교육의 여파와 공부 적게 하는 분위기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일본 공립학교의 경우 학력저하 등 유도리 교육으로 인한 문제가 많다고 했다(K6).

“친한 분 중에 일본인 유치원 선생님이 있어요. 딸과 아들이 모두 중학생인데, 딸은 사립고에 보내고 공부 안하는 아들은 공립고에 보낼 거래요. 대학도 떨어지면 공장에 보낼 거라고 하고요. 학비가 비싼데 자녀를 모두 사립대학을 보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들에게 공립고에 가든지 공장에 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아들이 진지하게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한대요. 일본 부모들은 아이들이 관심 없는데 혼자서만 공부해라 해라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K5, 초등자녀).”

“남편은 한국에서 화이트칼라 집안 출신이고 할아버지 때부터 잘 살았어요. 하지만 나는 일본에서 재일교포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화이트칼라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한국 여자들은 학교도 안 갔다고 얘기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나는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운이 좋게 그나마 대학을 나왔지요. 한국 남편과 결혼 후 우리 집에서는 애들 아빠의 치맛바람이 켜졌어요. 남편의 사촌들을 포함해서 집안 식구들이 모두 대졸자인 데다가 학벌이 좋다보니 우리 딸들에게도 학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환경차이로 갈등이 많았어요. 나는 공부 못해도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남편에게 끌려가게 되네요(K10, 고등 자녀).”

한국에서는 일본에 비해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이 더 중요하게 수용되고 있으며, 한국 엄마들의 자녀교육열은 이와 같은 성공지향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가치관과 기준이 통용되고 있으며, 한국에 비해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해서 타인에게 신경을 잘 안 쓰고 판사들이 한다고 해서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획일적 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일본인들은 자기 분수를 알기 때문에 지나치게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며 욕심이 없는 편이라고 한다(K10). 반면 한국 사람은 타인에게 간섭도 자주하고 타인의 시선도 수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부 경쟁이 강할 수밖에 없으며 자녀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도 목적 지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자녀 사회화 과정에서의 주안점 차이

한국인 어머니들이 평가하기에 일본 엄마들은 자녀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가정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주된 내용은 인사 잘하기 예절교육, 자녀 자립심 키우기, 타인에게 피해 안주기 교육,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키우기라고 했다. “일본 엄마들은 자녀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단지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만 바라며,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언성을 높이지 않고 대화를 하는 편이며 자녀의 인성교육에 신경을 쓰는 편”이라고 했다(K6). 가정에서는 인사를 중요시하고 아침인사나 자기 전 인사는 큰소리로 확실히 인사하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부모가 나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나도 자식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가르친다(J3).” 또한 생활상에서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는 확실하게 혼내준다고 했다(J1).

일본인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일일이 개입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식이 아니라 아이에게 자립심을 키워주는 편이다. 자녀가 장래에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모가 방향을 정해서 밀어붙이기보다는 다른 길을 권유하는 정도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자녀가 스스로 가고 싶은 길을 찾았을 경우에는 위험한 길이 아니라면 그 길로 보낼 것이라면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J3). 한 한국인 어머니가 보기에 한국 엄마들은 자녀들을 과잉보호해서 아기처럼 키우는 편이지만, 일본 엄마들은 자립심을 중시해서 만 3세부터는 아이를 잘 안 안아주고 무거운 물건도 어린 애들이 스스로 들게 하는 편이라고 한다(K6). 이에 대해 “일본 엄마들은 아이에 대해서 태연하게 보이는데, 한국 엄마들은 애들한테 별별 떠는 편”이고 아이가 뭘 잘 못하면 계속 잘 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개입하는 것이 눈에 띈다고 했다(K1). 일본 어머니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집안일도 시키고 스스로 정리정돈 하도록 가르친다. 보육원에서도 어린 아이들에게 테이블 닦는 법, 그릇 세팅하는 법 등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빨래를 개고, 동생 기저귀 심부름도 하고, 밥 먹을 때 수저 챙기고, 냅킨 놓는 일 등을 정기적으로 하게 된다(K1). 한국

남편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은 “한국에서는 자녀에게 일을 안 시키고 모두 엄마가 하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결혼 초에 한국에서 살면서 식사준비부터 속옷 빨래까지 어머님에게 맡기는 시늉이를 보고 너무나 놀랐다”면서, 한국에서는 공부하면 집안 일이 면제되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J8).

일본 엄마들은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타인에게 폐를 안 끼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어릴 때부터 신경 써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다. 1-2살 때부터도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조심시키는 경우가 많다(K7). 일본에서는 버스에서나 식당에서 애가 시끄러우면 엄마가 애를 야단치고 옆 사람에게 사과하지만, 한국에서는 식당에서도 부모가 주의를 안주니까 결국 종업원이 주의를 주고 부모는 모른 체 하고 있어서 이상했다고 한다(J9). 또한 일본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 속에서 우산을 갖고 있으면 땀 사람이 안 젖도록 자기 다리 사이에 놓도록 교육시키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휴대폰을 쓰지 않도록 교육시키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 속에서도 계속 휴대폰을 쓰고 사적 이야기를 남이 들어도 상관없이 크게 떠드는 점도 차이라고 했다(K10). 한국인 어머니들은 일본에서 생활하다보면 일본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많고 친절하다 것을 자주 느끼는 데, 자녀에게도 그러한 방식으로 가르쳐서 이기적이지 않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는 것을 일본인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K1).

하지만 매사에 타인에 대해 신경 쓰고 조심스럽다보니 일본에서 살면서 힘든 점도 많다고 한국인 어머니들은 얘기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주의를 주다보니 “아이들의 체격이나 정신연령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한국 아이들은 패기 넘치고 활달하지만, 일본에서는 남자 애들도 조용하다(K7).” 한국에서는 큰 목소리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전화하거나 다른 사람이 다 들어도 크게 얘기하는 점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자유로운 점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조심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보니 스트레스가 많고 남의 눈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 사회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은둔하는 ‘히키코모리’가 사회문제로 발생하는 것 같다고도 평가하였다(K9).

일본인 어머니들은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 청소년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예절의식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한국인의 장점으로선 전철에서 노인께 자리를 내드리는 등 웃어른에 대한 예절의식이 일본인들보다 강하며(J9),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국 청소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려 주거나 인사를 하는 등 아는 사람들에게나 가족 내에서의 예절은 일본사람들보다도 더 잘 지키는 경향이 보여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J8). 뿐만 아니라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 가정에 비해서 부모에게 반항을 많이 안하는 것도 장점으로 느끼고 있었다(J7). 일본에서는 타인에 대한 예의는 중시하면서 가족 간의 예의는 잘 가르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버지에게 말을 툭툭 해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부모에게는 고운 말을 쓰도록 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했다(K4). 또한 친구들에게 부모의 흉을 보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께 효도를 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도 문화적 차이이고(J8) 일본에서는 한국에 비해 형제 사이도 가능 정이나 오는 정이 없어서 개인주의적이며 서로 가깝지 않게 느낀다고 했다(J9).

“남편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남편은 효도를 해왔어요. 부모에 대해 나쁜 말 안하고 남의 앞에서 흉을 보지 않아요. 나는 일본에서 하던 식으로 친구들 앞에서 나의 부모 흉을 봤더니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남들 앞에서 부모 흉을 보느냐고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한국에서는 그래선 안 되는구나 하고 고쳤지요(J8, 고등자녀).”

한국은 일본에 비해 가족주의 의식이 강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강한 것이 한국 사회에서 높은 교육열을 이끄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핵가족 분위기가 강한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는 명절 때마다 결혼한 형제들이 모두 모여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확대가족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J9). 또한 일본에서는 자신의 학벌이나 직업을 내세워서 자랑하거나 사회적 인정을 받는 부분이 매우 적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가족단위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 예로 한국 사람의 결혼식에 가면 주례사에서

신랑의 학벌이니 집안배경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에서는 가족 없이 혼자 대학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에서는 부모·형제 뿐만 아니라 다른 친척들도 참석하는 점이 차이라고 했다(J10). 이와 같이 가족 간 유대가 강하고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친족을 포함한 확대가족의 전통이 일본에 비해 강한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성공에 대해 기대를 거는 가족의 범주가 넓게 작동하고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것도 한국의 교육열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자녀에 대한 물질적 지원에 있어서의 차이

일본인 어머니들은 한국에 와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끝나고 나서 군 것질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고 한다. 일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용돈 갖고 다니는 것을 교칙으로 금해서 등학교 길에 음식물을 사먹으면 안되고 학교에 먹을 것을 갖고 가도 안 된다. 지금 자녀가 다니는 서울 소재 일본인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용돈 갖고 오는 것을 금하고 있다(J7).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들도 학교에 돈 갖고 와서 사먹고 또 친구들에게 사주기도 하므로, 애들한테 돈을 안 주면 다른 친구들에게 얻어먹기만 하라는 얘기이므로 돈을 안 주기도 고민스럽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각자 내는 ‘더치페이(dutch-pay)’ 문화여서 남에게 얻어먹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값아야 하는 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주는 일이 거의 없는 데,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들도 친구에게 서로 사주므로 자녀를 교육시키기가 힘든 부분이다(J6). 한국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용돈을 너무 많이 주는 편이고 돈을 달라고 하면 금방 주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인 어머니 생각으로는 애들이 공짜로 생긴 돈은 헤프게 쓰는 나쁜 버릇을 키우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J9). 또한 일본에서는 집에 손님이 와서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법이 절대 없는데, 한국에서는 손님이나 친척이 돈을 쥐서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습관을 만들기도 한다고 평가하였다(J8).

“아이가 현재 하는 일로는 목욕탕 청소, 이불개기, 밥상 차리기, 쓰레기

버리기 등이고요. 각각의 일에 대해 얼마씩 준다는 것이 정해져 있고 텔레비전 안보면 얼마 추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액수를 정한 다음 스스로 용돈을 적게끔 하고 있어요. 아이가 목표를 정하고 벌고 싶은 만큼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방법이에요. 제 경우도 용돈을 많이 받지 못하면서 자랐고 중·고등학생 때 기억으로도 조금씩만 받았어요. 대학교 학비는 부모가 내주었지만, 자취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조금만 보태주셔서 장학금을 받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등록금 빼고는 자립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J6, 중등자녀).”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용돈을 스스로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아이나 부모가 모두 갖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점이 차이이다. 일본에서는 대학생들도 집이 학교랑 정말 가깝지 않으면 분가해서 따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로 살 때 방세가 비싸서 도와주는 부모도 있지만, 부모가 도와주더라도 대학생도 스스로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너무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부모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일들도 생긴다(K3). 일본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것을 관리하는 편이어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 수가 없다(J8). 또한 한국에서는 시부모께 용돈을 드리는 게 통상적인데, 일본에서는 부모가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돈을 드리는 것은 부모의 프라이드를 해친다고 생각해서 어버이날에 선물을 보낸다거나 식사 대접하는 정도일 뿐 현금을 드린 적은 없는 것도 문화적 차이라고 얘기했다(J2).

한국에서는 일본에 비해 물질적 가치가 더 중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부자가 존중받고 인정되는 사회적 풍토에서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보니 교육열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강하고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 이는 교육의 문 제도 학원비나 과외비 등 사교육비를 많이 투자해서 해결하려는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도 어머니회 소속 엄마들만 돈을 많이

내서 학급 운영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본과는 차이가 있어서 거부감을 가졌었고, 돈을 같이 안내면 아이에게 손해가 되지 않나 걱정하기도 했다고 한다(J10). 일본에서는 모든 비용을 학급의 학부모가 똑같이 나눠 내서 사용하는 풍토이지만, 한국에서는 어머니회 활동하는 부모들만 돈을 많이 내므로 의사결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본인들만 정보를 나눠가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J6). 이와 같이, 일본에 비해 물질적 위세가 더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한국 사회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용돈을 많이 주고 사교육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돈으로 많은 것을 해결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마친 후 물질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직업을 갖도록 교육시키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한 점이 한국인의 교육열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교육과 자녀교육의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적 맥락에서의 해석이 필요하다. 심층면접에 참여했던 어머니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교육열 차이와 관련된 문화적 차이를 살펴보면 가치관 차이, 학력의 영향과 사회적 인정의 차이, 물질적 가치가 통용되는 정도의 차이, 가족주의 의식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안정된 직업을 갖기가 어렵지 않은 것도 커다란 차이이다. 물론 일본에서도 고수입을 얻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대학을 나와야 하지만,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원하는 직장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처럼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J7). 일본에서는 중소기업도 탄탄하고 돈이 많다보니 기술직도 임금이 높고 평생 고용을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다(K10). 요즘은 “학벌이 별로 상관없다고 할 정도로 일본 회사에서는 면접을 통해 개개인의 인성을 확인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J7).” 또한 일본 사회에서는 월급이나 능력 등을 별로 문제시하지 않으므로 학벌에 따른 사회적 평가나 직업 지위에 대한 차별이 적다(J6). 이는 일본 사람들의 꿈이 소박하고 직업의 귀천을 안 따지는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소박한 부모의 직업을 가업으로 이어나갈 계획을 세우는 등 일본인들은 일 자체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다(K10). 이러한 심층면접 내용은 일본 고등학생들의 경우 부모와 동일한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한국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희망직업이 부모 직업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아리타 신, 2005). 또한 일본에서는 교육의 효과로 자기실현적 목적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한국에서는 경쟁적인 사회 자본으로 기능하여 결혼관이나 사회적 관계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와타나베, 2006).

V. 결론 및 제언

양국 어머니의 심층면접을 통해 교육과 관련해서 나타난 중요한 결과는 한국에서는 공부와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일상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양국 사이에 발견되는 중요한 특성으로는 첫째, 일본에서는 교육기대에 대한 계층차이가 커서 상류층의 경우 최상의 교육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지만 중류층만 해도 국공립학교에 보내서 자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게끔 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한국에서는 중하류층의 경우에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비해 일본에서 계층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 반면, 한국에서는 중산층도 교육경쟁에 참여함으로써 계층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으면서도 사교육이나 과외를 더 시킬 여력이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으로 나뉜다.

둘째, 한국에서는 대학입시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고 결과를 중시하므로 자녀의 공부성적이 중요하게 대두되지만, 일본에서는 결과 그 자체보다는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함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었다. 즉, 한국에서는 성공의 개념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결과가 중요한 반면, 일본에서는 열심히 하는 생활태도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엄마들은 아이의 성적을 높일 수 있는 공부방법과 사교육에 대한 정보교환에 신경을 쓰는 한편, 일본 엄마들은 아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데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한국에서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하며, 공부 외에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성향에 대해 지적하였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공부뿐만 아니라 인성 발달을 위해 특활활동과 운동의 중요성을 높이 사고 있다는 점을 차이점으로 부각시켰다. 이상의 의견을 종합하건대, 한국에서는 특정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한 영역만 파고드는 ‘스페셜리스트(specialist)’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여러 분야를 함께 잘해야 하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를 중시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한국과 일본에서 엄마들이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나 사회화시키는 방법에서 모성과 젠더역할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엄마들은 자녀가 공부만 잘하면 다른 모든 것이 용납되는 분위기를 반영해서 다른 어떤 측면보다 공부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며, 아이들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엄마들도 ‘교육매니저(Park, 2007)’로서 공부 관련 정보 수집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목적지향적인 모성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반면, 일본 엄마들은 자녀가 행복하게 자라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치중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심층면접 내용에서 일본 엄마와 한국 엄마 모두에게 가부장적인 가족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가부장제가 작동하는 방식이나 내용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 엄마들은 사회에의 기여와 연계해서 자녀교육을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서 “자녀가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공부를 시키고 싶다”거나 “자신의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키우고 싶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사회와 가족의 연계를 나름대로 설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교육에 치중하는 한편,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측면이 강해서 상호 경쟁적이고 목적의식이 강한 생활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녀를 최고로 만들고 싶어 하는 한국의 어머니들은 결과에 치중하는 성향이 강해서 자녀들의 자립심 키우기에는 상당히 무심하다. 일본 아이들에 비해 집안일을 시키지 않으며, 물질적으로도 의존하게끔 만드는 측면이 강하다. 이제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면제되는 식의 자녀사회화 방식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어머니들이 스스로 평가를 내렸듯이 자녀교육목표가 경직적이며 획일적인 데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자녀의 취향이나 특성을 인정하고 자녀 스스로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게끔 부모가 도와주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어머니들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시도하는 자녀 위주의 취미 쌓기, 특성 발굴하기 등 자녀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생활습관 기르기에 주력하는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판단된다. 자녀가 자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닌 주체적 개인으로 성장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 자녀교육에 관한 한 가부장제적 모성담론은 한국 엄마들이 일본 엄마들에 비해 더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마다 마사히로의 주장과 같이, 일본 엄마들은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많은 신경을 쏟지만 부모의 인생을 희생할 정도로 자식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부모의 임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야마다 마사히로, 2010: 178). 또한 자녀를 위해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더라도 자녀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게끔 돕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 편이었다. 일본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존중하는 입장으로 ‘지원적 모성’으로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옆에서 지원하는 태도가 지배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 엄마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엄마가 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모성신화를 내면화하고 있다. 일본 엄마에게는 주부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회적 강요체계가 심리적 차원에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한편, 한국 엄마들에게는 자녀의 성공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성취위주의 문화적 압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자녀양육과 교육의 결과가 성공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도구적 가족주의(신용하·장경섭, 1996)’와 목적 추구를 위한 ‘도구적 모성’이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학력을 위해서 가족 간의 관계마저 희생하는 ‘싱글로벌 기러기 가족(조은, 2004)’이 도구적 가족주의의 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자녀가 성공하면 엄마의 사랑이나 노력의 결과로 평가받는 ‘모성의 도구화’가 도구적 가족주의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녀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과 기득권의 유지가 중산층 가족 안정의 주요한 관건이다 보니, 자녀교육의 결과와 성공에 대한 ‘모정보상체계’로 인해 도시 중산층 주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높은 경쟁률을 둘러싼 엄마들의 정보교환 방식이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 범람으로 인해 어떤 정보를 취해야 할지 고민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한국 엄마들의 불안구조를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김소희, 2004; 최순자 외, 2006). 목표 지향적이며 자녀의 성공에 치중하는 어머니의 교육태도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가 부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한다는 인식이 생겨서 갈등의 원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Hays, 1996). 이제 한국의 어머니들도 자녀의 일류대학 입학과 사회적 성공으로 자신의 역할을 평가받는 사회문화적 압력으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가족의 지위재생산을 위해 헌신하는 ‘도구적 모성’의 끈을 힘겹게 부여잡고 사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 소통방식을 즐기며 부모-자녀 관계의 내실을 다지는 ‘합리적 모성’과 ‘주체적 모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엄마들끼리의 정보교환을 통한 심리적 동일시에서 벗어나 자녀를 위한 목표나 사회화 방식을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자녀교육에서의 성공을 최고 가치로 두는 엄마 역할에 대한 평가나 모정보상체계의 수용은 기혼여성을 비주체적인 개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여성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부장제 모성담론에 저항하는 모성담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좁은 가족이기주의와 도구적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적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모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의 모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교육제도와 부모의 자녀교육 방식이 한국과 다르게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수십년간 국가적 차원에서 경주해온 노력이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70년대부터 ‘유도리 교육’에 관심을 가져온 이래, 폭 좁은 공부중심의 학력 쌓기 경쟁에서 벗어나서 포괄적인 교육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근거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 입시중시 정책 기조를 전인교육, 인성교육, 가정교육을 포함한 교육전반의 향상

기조로 전환해왔다. 한국에서도 소수 엘리트 육성에 주력하는 기존의 일류지향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재형과 일상에서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과 삶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적 차원에서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교차거주 어머니들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한국 어머니들이 느끼는 한국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특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문화적 맥락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해석해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연구자로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본인의 습성으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혼네’, ‘다테마에’ 문화는 심층면접법의 한계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적 유사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층면접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신의 교차거주 경험에 기초해서 연구자에게는 차이점에 주목한 내용들을 들려주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인들에게 익숙한 문화적 내용보다는 특색이 있거나 생소한 문화에 치중한 경향이 있으므로 문화적 유사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소개하지 못한 점 또한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특수성과 연계해서 심층면접자들이 자신의 교차거주 경험을 중심으로 자녀교육태도와 관련된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그들의 관점에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해 냈다는 점을 이 연구의 성과로 인정하게 된다.

참고문헌

- 권용혁(2004). “동아시아 3국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 - 가족을 중심으로,” 권용혁 외, 한·중·일 3국 가족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 이학사.
- 국립여성교육회관(2006) 헤이세이 16년도·17년도 가정교육에 관한 국제비교조사보고서.
- 김보림(2007). “최근 일본 교육개혁의 동향: 학습지도요령과 학력저하 논쟁을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현대일본학회, 제26권, pp. 393-424.
- 김상봉(2004). 학벌사회, 서울: 한길사.
- 김소희(2004). “학부모 교육열의 내러티브적 접근,” 교육학연구, 제42권 2호, pp. 271-313.
- 김창호(1997). “영어의 조기교육에 관한 연구”, 언어학, pp. 117-132.
- 김현철·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 외(2007). 질적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21-02.
- 김홍주·한유경·김현철(1999). “한국 학생 연간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변동 추세”, 교육학연구, 제37호 4집, pp. 307-329.
- 나카네 지에(1994). 日本의 社會構造: 單一社會의 理論, 최길성(역), 형설출판사.
- 나카무라 타카야수(2005). “일본의 교육시스템과 교육열: 한국과의 비교 분석,” 이종각(편), 한국의 교육열, 세계의 교육열: 해부와 대책, 도서출판 하우, 제12장.
- 니스벳(2004). 생각의 지도: 동양과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최인철(역), (Nisbett, Richard E.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 and Why*), 김영사.
- 마경희·이재경(2007). “동아시아 복지체제 재편과 젠더: 한국과 일본의 자녀양육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9집 1호, pp. 91-116.
- 마츠다 시게키(2006). “시계열조사를 통해서 본 일본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의 변화,” 청소년의 가족내 사회화과정: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5개국 비교, 한국청소년개발원.

문소정(1999). “한국 여성운동과 모성담론의 정치학,” 심영희 · 정진성 · 윤정로 공편, 1999, 모성의 담론과 현실: 어머니의 성 · 삶 · 정체성, 나남출판, 제 3장.

문소정(2002). “여성의 정체성과 사회적 삶,” 박 재환 외, 한국과 일본의 일상생활, 부산대학교 출판부, pp. 308-338.

문옥표(1994). “이에의 연속과 변화,” 일본의 농촌사회: 관광산업과 문화 변동, 서울대출판부, 제5장.

문준호(1988). “가족주의의 성격과 경제성장과의 관계-한국과 일본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산대 사회조사연구소(2000). 부산/후쿠오카 지역 생활의식조사.

손승영(1997). “가족과 친족의 한일 비교,” 연세여성연구, 연세대학교 여성연구소, 제3호, pp. 7-40.

손승영(2000). “일본 가족가치관의 유지와 변형,” 동덕여성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제5호, pp. 79-96.

스즈키 고지 외(2009). 일본의 가족은 어디로 가는가: 비혼, 가족붕괴, 저출산, 표세만 외(역) 당대.

신용하 · 장경섭(1996).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문화, 지식산업사.

심영희(1996). “시간문화와 여성-대입 수험생 어머니의 삶에 나타난 전통 · 현대 · 탈현대,” 한국여성학, 제12권 2호, pp. 1-41.

아리타 신(2005) “직업의식과 교육열의 한일 비교연구-고등학생의 직업 희망과 교육체제,” 이종각(편), 한국의 교육열, 세계의 교육열: 해부와 대책, 도서출판 하우, 제13장.

야마다 마사히로(2010). 우리가 알던 가족의 종말: 오늘날 일본가족의 재구조화, 장화경(역), 그린비.

양현아(1988). “한국가족법에서 여성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pp. 109-126.

오사와 마리(1995). 회사인간사회의 성, 정진성 · 장화경(역), 나남출판.

와타나베 히데키 외(2006). 일본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과정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18-03.

- 와타나베 히데키(2008). “가족의식의 변화와 저출산”, 고미네 다카오 편, 인구감소·저출산사회의 미래: 고용과 생활의 질을 높여야, 노진귀 (역),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제 8장.
- 우에무라 구니코(2005). 이규선 외(역), 다가서는 남과 여, 멀어지는 결혼, 인터.
- 유재순(1998). 일본여자를 말한다, 창해.
- 윤택림(1996). “생활문화 속의 일상성의 의미: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과 모성이데올로기”, 한국여성학, 제12권 2호, pp. 79-118.
- 이노우에키요시(2004). 일본여성사, 성해준·감영희(역), 어문학사.
- 이영자(1999). “한국사회의 가족주의와 페미니즘,” 현상과 인식, 제78권, pp. 107-122.
- 이종각(2005). 한국의 교육열, 세계의 교육열: 해부와 대책, 도서출판 하우.
- 이정규·김현철(2005). “우리나라 영재의 개인적 가정환경적 배경변인에 대한 연구,” 교육방법연구, 제17권 2호, pp. 239-258.
- 이정규·최순자(2007).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 도덕성과의 관계,” 아동교육 제16권 2호, pp. 145-158.
- 이진원(2004). “일본의 가부장적 질서와 통치 구조,” 권용혁 외, 한·중·일 3국 가족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 이학사, pp. 475-502.
- 정진성(1999). “현대일본의 모성 인식,” 심영희·정진성·윤정로 공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어머니의 성·삶·정체성, 나남출판, 제 10장.
- 조은(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 신글로벌 모자녀 가족 사례연구,” 경제와사회, 제64권, 한울.
- 조형(1994).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권력: 구조적 무권력화와 구성적 권력화”, 한국여성학, 제13권 2호, pp. 199-241.
- 조혜정(1988). 한국의 남성과 여성, 문학과 지성사.
- 종합여성사연구회(2006). 지위와 역할을 통해 본 일본여성의 어제와 오늘, 최석완·임명수(역), 도서출판 어문학사.
- 주창렬(2004). “일본의 핵가족화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이혼,” 권용혁 외, 한·중·일 3국 가족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 이학사, pp. 503-548.

- 최순자 · 深谷昌志 · 이광형(2006). “육아불안 구조의 국제비교: 한국, 일본, 대만 어머니의 자녀양육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제 11권 1호, pp. 163-176.
- 최순자(2007), “유아를 둔 한국과 일본 부모의 양육태도 비교,”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제12권 1호, pp. 111-130.
- 최재석(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현음사.
- 츠위화 편(2008). 일본여성: 성과 사랑, 삶의 역사, 김현정(역), 시그마북스.
- 한국여성연구원(2002).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 푸른사상
- 한승완(2004). “동아시아 3국의 가족의식과 공중: 민주적 공공성의 의식적 기초,” 권용혁 외, 한 · 중 · 일 3국 가족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 이학사, pp. 149-174.
- 홉스테드(1996). 세계의 문화와 조직, 차재호 · 나은영(역), 학지사.
- 東洋(2004), 日本人のしつけと教育, 東京大學出版會.
- 中村高康(2000). “高學歷志向の趨勢-世代 注目,” 日本の階層 戦後日本の教育社會, 東京大學出版會, pp. 151-174.
- Alison, Ann(1991). "Japanese Mothers and Obentos: The Lunch-Box as Ideological Status Apparatus," *Anthropological Quarterly*, 64(4): 195-208.
- Dore, Ronald Philip(1992). *The Diploma Disease: Education, Qualification and Development*, 이진만, 김성학(공역), 『졸업장 열병: 한국사회의 교육병리』, 서울: 양서원.
- Hays, S.(1996).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Iwao, Sumiko(1993). *The Japanese Woman: Traditional Image and Changing Rea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Moon, Okpyo(1990). "Urban Middle Class Wives in contemporary Korea: Their Roles, Responsibilities and Dilemma," *Korean Journal*, 30(11): 30-43.

-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2007).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Home Education" 2005: Survey on Children and the Family Life*.
- OECD(1971). *Reviews of National Policies for Education: Japan*, paris: OECD.
- Park, S. J.(2007). "Educational Manager Mothers: South Korea's Neoliberal Transformation," *Korea Journal*, 47: 186-213.
- Pomerleau, A., Malcuit, G., & Sabatier, C.(1991). "Child-rearing Practices and parental beliefs in three cultural groups of Montreal: Quebecois, Vietnamese, Haitian," in M. H. Bornstein (ed.), *Cultural Approaches to Parenting*, Hillsdale, NJ: Erlbaum, pp. 45-68.
- Smith, Robert J.(1983). "Making Village Women into 'Good Wives and Mothers' in Prewar Japan, *Journal of Family History*, spring issue.
- Steinhoff, Patricia G.(1994). "A Cultural Approach to the Family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radition and Change in the Asian Family*, edited by Lee-Jay Cho and Moto Yada, Honolulu: East-West Center, pp. 29-44.
- Thurer, Shari L.(1994). *The Myths of Motherhood*, New York: Penguin Books.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Attitudes in Educating Children between Korean Mothers and Japanese Mothers: Evaluation of Own Culture and Foreign Culture by Those Who Lived in Both Countries

Sohn, Seong Young*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how mothers who lived in both Korea and Japan evaluate their own culture and foreign culture regarding educational fever and attitudes in educating children. I selected 10 Korean mothers who reside in Tokyo and 10 Japanese mothers who reside in Seoul for more than a year and then used in-depth interview methods to investigate about their ways of socializing their children who attend school.

Most of the participants for in-depth interviews agreed that Korea where entering college is very important than in Japan is more competitive in educating children. Specifically, first, while only those in upper class who sent their children to private schools show high fever in educating their children in Japan, majority of Koreans accept the competitive nature of education regardless of their stratification. Second, compared to Korea where academic achievements and goals of entering top university are important, Japanese mothers tend to teach that the process of studying hard itself is more important than achieving goals.

* Professor in Gender Studies, Dongduk women's University

Third, it is difficult for students to do studying and extra-curriculum activities at the same time in Korea where 'specialists' who excel in one area are acknowledged as the best. However, in Japan, 'generalists' who perform several different activities well at the same time are more respected than the 'specialists'. Fourth, even though both Korean and Japanese mothers spent a lot of time for their children and felt strong responsibilities for their children, they showed differences in the way to perceive the nature of motherhood or educate their children. Korean mother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cademic records and tried to gather information on how to improve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But Japanese mothers thought that education for personality and living was more important and mothers needed to provide good environments so that their children could live healthy.

Key words: comparison between Japan and Korea, own culture, foreign culture, attitudes in educating children, educational fever, instrumental motherhood, supportive motherhood